

“북한 고농축우라늄 540kg 생산 추정”

IAEA 前사무차장

“연간 핵무기 6개 분량 생산 능력”

“비핵화 합의해도 과거 생산 검증”

북한이 핵무기 제조를 위해 영변 핵시설에서 생산한 고농축 우라늄이 지난해 말까지 540kg에 달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 스티븐슨센터의 연구원인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이런 분석을 실었다. 38노스는 스티븐슨센터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다.

북한은 핵물질을 얻기 위해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을 각각 생산하는 시설을 영변에 두고 있다. 5메가와트 원자로 등에서 추출하는 플루토늄보다는 우라늄농축공장(UEP)에서 생산하는 고농축 우라늄이 북한 핵 프로그램의 근간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하이노넨은 북한이 작년 말까지 최대 705kg의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지만, 원심분리기 교체 작업 등 다른 요인을 감안할 때 실제 생산량이 540kg에 가깝다고 추산했다.

또 북한의 연간 고농축 우라늄 생산 능력은 핵탄두 6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150~160kg에 이를 것이라고 봤다. 핵탄두 1개 제조에 필요한 고농축 우라늄의 양은 전 단계에 따라 20kg에서 27kg까지 다양하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하이노넨은 북한이 20~27개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했다고 본 셈이다.

이번 분석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북한이 지난해 이미 67~116개의 핵무기를 보유했을 것이라고 본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 랜드연구소의 지난 4월 보고서와 상당한 차가 있기 때문이다. 랜드연구소 등은 북한이 매년 12~18개씩 추가해 2027년에는 151~242개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이노넨은 이런 분석의 차이가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생산시설에 대한 가정에서 비롯된 부분이 크다고 설명했다.

랜드연구소 등은 영변 외에 강선, 분강, 서위리 등 3개 지역에 대규모 고농축우라늄 생산시설이 있다고 전제했지만, 하이노넨은 이 시설들이 그 정도 규모가 아니거나 농축공장의 특징을 지니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북한의 핵탄두 보유량과 관련해 영국 국제문제 전략연구소(IISS)와 러시아 에너지안보연구소(CENESS)는 지난 14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플루토늄까지 포함해 최대 핵탄두 47개분의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핵탄두 5개 분량의 생산 능력을 갖췄다고 분석했다. 스웨덴 싱크탱크인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지난 1월 기준으로 작년보다 10개가량 증가한 40~50개로 추정한다고 지난달 발표했다.

북핵에 정통한 미국의 핵 과학자 지그프리드 헤커 스탠퍼드대 선임연구원은 지난 4월 38노스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지금까지 생산했다고 추정되는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의 양을 고려하면 20~60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45개 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맨 오른쪽)가 18일(현지시간) 홍수 피해가 집중된 라인란트팔츠주의 슈트를 방문해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홍수현장 간 메르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폐허”

“기후변화와의 싸움에 속도 내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18일(현지시간) 홍수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초현실적이고 음산한 광경”이라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폐허”라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 홍수 피해가 집중된 라인란트팔츠주 아르바일러 지역 슈트를 방문, 연방정부 차원에서 피해지역 복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연방정부는 오는 21일 홍수 피해지역 복구지원프로그램을 의결할 것”이라며 “이곳에는 매우 많은 것을, 매우 오래 복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는 “우리는 자연의 위력에 등장기적

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는 기후변화와의 싸움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 내 극단적 이상기후와 피해 상황의 총합을 보면 이는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다는 징후가 보인다”면서 “이에 따라 홍수 대책이나 농산림 정책을 마련할 때 최대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말루 드라이어 라인란트팔츠주 총리는 “라인란트팔츠주는 홍수에 익숙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수년간 10억 유로 이상을 투입했다”면서 “우리는 상당히 잘 대비가 돼 있었지만, 이번 홍수는 너무 빠르고 어마어마한 규모로 닥쳐 독일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차원으로, 우리의 대응체계의 한계를 넘어선 수준”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스라엘이 수출한 스파이웨어 프로그램 전 세계 언론인·인권 운동가 해킹에 사용”

WP 등 공동 탐사보도

이스라엘의 민간 보안기업인 NSO그룹이 개발한 스파이웨어 프로그램 ‘페가수스’가 전 세계 언론인과 인권 운동가, 기업인 등의 휴대전화를 해킹하는 데 사용됐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국제사면위원회와 프랑스의 비영리 언론단체인 ‘포버튼 스토리즈’는 페가수스와 관련된 5만 개 이상의 전화번호 목록을 입수했다. 이에 WP는 영국 가디언, 프랑스 르몽드 등 전 세계 16개 언론 파트너들과 공동취재팀을 꾸려 수개월에 걸친 탐사보도 작업을 진행했다.

WP 보도에 따르면 취재진이 입수한 자료만으로는 5만 개 이상의 전화번호를 누가, 왜 입력했는지 나와 있지 않고, 이 중 얼마나 많은 번호가 감시의 대상이었던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전화번호는 전 세계 50개국 이상에 걸쳐 있었는데, 주로 자국민을 감시하고 NSO의 고객으로 알

려진 국가에 집중돼 있었다. NSO는 테러범과 중범죄자를 추적하기 위해 페가수스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40개국에서 60곳의 정보, 군, 법집행 기관을 고객으로 두고 있다.

스파이웨어는 ‘스파이’와 ‘소프트웨어’의 합성어로, 휴대전화 이용자가 ‘합성 링크’를 클릭하면 이들의 중요한 개인정보가 유출된다. 전화번호가 가장 많이 등재된 국가는 멕시코로, 정치인, 노조 대표, 언론인, 정부 비판자를 포함해 1만5000명 이상이 리스트에 올랐다.

유럽에선 1000 개가 넘는 프랑스 전화번호가 있었고, 수백 개의 헝가리 전화번호가 입력됐다.

공동취재팀은 5만 개가 넘는 전화번호 중에서 50개국 이상에서 1000 명이 넘는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2016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이 전화번호 자료엔 아랍의 왕족 몇몇이 있었고, 적어도 65명의 기업 임원, 85명의 인권운동가, 189명의 언론인, 600명이 넘는 정치인과 정부 공직자가 있었다. /연합뉴스



“IOC는 약탈자”... 일 올림픽 반대 시위 도쿄올림픽에 반대하는 일본 시민들이 18일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을 환영하는 행사가 열리는 도쿄 아카사카 영빈관 주변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IOC는 약탈자”라는 구호가 현수막에 적혀 있다. /연합뉴스

탈레반, 아프간 영토 절반 이상 장악... 연합군 철수 후 급속팽창

400개 지역 중 정부 통제 110곳

미국을 주축으로 하는 연합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를 시작하면서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아프간 영토의 절반 이상을 장악했다.

18일(현지시간) dpa 통신에 따르면 탈레반은 최근 아프가니스탄 34개 주 약 400개 지역 중 210개 이상을 장악했다. 이는 전체 영토의 절반 이상으로, 아프간 정부가 통제하는 약 110개 지역과 비

교해 두 배에 가까운 수치다.

아프간에서는 현재 탈레반과 정부 사이에 교전이 진행 중이며, 약 80개 지역에서 주도권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탈레반의 영토 확장은 연합군이 철수하기 시작한 5월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탈레반은 반(反) 탈레반 전투의 영웅 아흐마드 마수드 북부동맹 사령관의 고향인 판지세르를 시작으로 수년간 평화를 누리던 중부 바미안주 2개 지역까지 영역

을 넓혔다. 바미안은 관광 명소로 매년 수만 명의 아프간인과 수백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찾는 곳이기도 하다.

또 탈레반은 아프간의 주요 국경과 무역 통로 중 한 곳인 시린 불다 지구도 점령했다고 아프간 의회 굴 아마다 카민 의원과 네마투라 외와 의원이 밝혔다. 스린 불다는 아프간과 파키스탄 접경 도시로, 파키스탄 남부 항구도시 카라치에서 아프간으로 들어오는 교역품의 핵심 거점지이다. /연합뉴스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